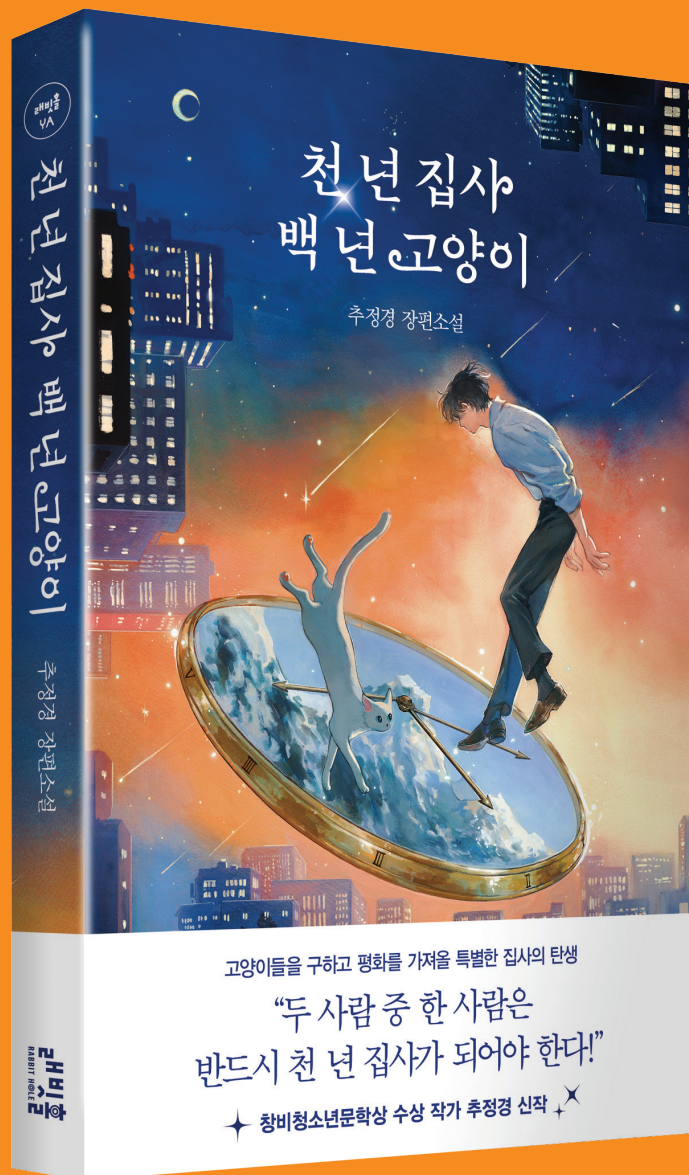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판타지, 스릴러, 미스터리, 동물권, 생명 존중

※ 책 소개

고덕은 살해당한 엄마 품에서 죽어 가던 새끼 고양이로부터 “자신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양이의 첫 번째 능력인 ‘고양이의 언어’를 얻게 된다. 이후 엄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자 길 고양이들과 소통하며 유일한 목격자인 환생한 새끼 고양이를 찾아 나선다. 그 사이 고양이들 사이에서 고덕이 천 년에 한 번 나타나는 ‘천 년 집사’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한편, 동물 복제 연구소에서 근친 교배로 태어난 백호 ‘티그리스’와 깊은 유대를 나눈 소년 테오는 티그리스가 안락사당하는 순간, 고양이의 다섯 번째 능력을 얻는다.

고덕과 테오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공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 가며 고양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그러나 새끼 고양이를 찌르며 능력 일부를 얻게 된 연쇄 킬러가 자신의 능력치를 키우고자 길 위의 고양이들을 위협하려 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모든 생명이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인다.

고양이 세계에서 생명의 존엄을 지닌 자만이 ‘천 년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규칙 속에서, 고덕과 테오는 연쇄 킬러보다 먼저 백 년 고양이를 찾아 아홉 능력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 또, 환생한 새끼 고양이를 찾아 엄마를 죽인 살인범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 학습 목표

- 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 ③ 작품 내용을 고려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반려동물에 관한 경험 떠올리기
2	독서 중 활동	1. 두섬땃 동물병원 ~ 2. 인간 테오와 백호 티그리스 1.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창의적 읽기) 작품 관련 지식 확장하기 3.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소재의 특징 비교하기
3		3. 모자란 그놈 ~ 4. 고덕의 이중생활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추론하기 + 내용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4. (배경지식 쌓기) 고양이 품종 알아보기
4		5. 테오의 기다림 1. (추론적 읽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5		6. 이고덕 집사의 시작 ~ 7. 연두와 분홍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특징 추론하기 3. (비판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6		8. 아파트의 터줏대감들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관련 지식 확장하기
7		9. 2회차와 3회차의 방문 1. (창의적 읽기) 작품 관련 지식 확장하기 2.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기 3.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4.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8		10. 노묘의 눈과 히말라야의 설표 1.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다른 작품과 연계하여 읽기
9		11. 삶의 약속 ~ 12. 보은과 목숨 1. (배경지식 쌓기) 삶의 특징 알아보기 2. (추론적 읽기) 소재 및 인물의 숨겨진 의미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10	독서 후 활동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권 창작하기

1.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2-1. 강아지와 고양이 중 어떤 동물을 반려동물로 삼고 싶나요? 하나만 골라 봅시다.

반려동물은 당연히 '강아지' 아니겠어? VS 아직 '고양이'의 매력을 모르는군!

2-2.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 정리해 봅시다.

2-3. '애견파'와 '애묘파'로 나누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유크즈온더블럭] 강아지 vs 고양이 누가 더 귀여운개! 수의사 설채현&나응식 자기님의 끝까지 않는 논쟁 #설채현 #나응식
<https://www.youtube.com/watch?v=oYnFTuHcj-0>

3. 다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 참고 영상1: 매일같이 길고양이 밥 챙겨 주는 사람들_포획망을 들고 나선 캣맘_한국의 심각한 길고양이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H2YOz82oQFg&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8-&index=39>
- ▶ 참고 영상2: 주차장 차량 밑에 사료 두자... "내 차는 안돼!"_KNN
<https://www.youtube.com/watch?v=dKjIXk02B38>

3-1. 두 영상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3-2. 두 입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도 tip] 한쪽에 치우치는 방안이 아닌, 두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이름	특징
	두섬땡 동물병원 원장 인간 캣넵, 말하는 츄르, 하악질계의 시조새
지윤	두섬땡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영업 실장
서준	
	서준의 동생 잘생긴 꽃미남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고양이의 보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참고 링크: 생명의 은인에게 보은하기 위해 길고양이가 매일 훔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yTZ4gdtC2Ts>

왜냐하면, 이진 잘 알려진 비밀인데, 고양이에겐 보은과 복수는 동급이며 그들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집사가 되면 고양이는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보은하지만, 어설프게 키우다 버린다면 그 죄과에는 열과 성을 다해 복수할 것이다.

3.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① 테오가 '백 년 고양이'라 불렀던 백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② 테오의 특수한 능력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 ③ 연주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보기1>과 <보기2>에서 드러나는 '돈'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1>

그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형을 따라온 군식구임에도 연주는 테오의 이름을 새긴 직원 유니폼을 맞춰 주었다. 출퇴근 카드를 찍게 하고 테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책정해 격주 지급으로 내주었다. 단 한 번도 직접 일을 해 돈을 벌어 본 적 없는 테오는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받은 돈봉투를 보자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중략>

묵직한 돈이 든 봉투는 마법이 깃든 것처럼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테오의 움츠러든 어깨를 펴지게 했고 무겁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자신이 무의미하게 보내던 시간에 숫자가 매겨지니 그 시간이 값어치 있게 느껴졌다. 몸을 써서 받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자신의 쓸모를 인정해 준 값어치였다. 정신과 의사의 팬찮다는 수십 번의 말보다 땀 흘려 번 얼마 되지 않은 돈이 테오의 상처받은 마음에 더 효과적이었다.

<보기2>

민낯의 진실과 맞부딪혔을 때 형이 느낄 충격을 알기에 말할 수 없을 뿐이었다. 테오가 무려 6개월 동안 입을 열 수 없었던 건, 티그리스에게 약물을 주입하던 가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형의 연구실 동료 하퍼와 제이슨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였다. 그들이 티그리스를 죽이는 동안 CCTV를 삭제하고 길을 열어 준 토끼 가면이 테오가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다정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 주던 경비원이라는 것도. 인간은, 인간이란 동물은 탈을 뒤집어쓰지 않고도 돌변한다. 어쩌면 그 얼굴 앞에 뒤집어쓴 기괴한 가면이 그의 본모습일 수도 있다. 티그리스가 숨결을 불어 넣어 준 다음에야 하퍼가 즐겨 피우는 마리화나 냄새와 제이슨의 오래된 향수 냄새가 그들의 가면을 벗겼다. 티그리스를 죽이고 사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뒤 먼저 받은 계약금이 달려 묶음으로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채였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 ① 현직 ()이자 PD인 이고덕은 그의 반려묘 ()의 집사이기도 하다.
- ② 고덕의 개인 계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에 관한 것이다.
- ③ ()을/를 거둬주는 고양이는 ()마다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백 년 고양이는 () 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봉봉이의 능력은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그때 그놈 본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양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눈이 돌아가는데, 조금 전까지 사람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딴사람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사람을 해코지하는 고양이는 꼭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만약 집에 아기라도 있으면 어쩔 거냐고, 하씨! 저 혼자 김치국을 마시더니 자기가 아는 동물병원 의사한테 전화하겠다고 휴대 전화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잠자코 계셨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하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점잖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막내딸을 안락사시키겠다고 말하는 인간과는 그 어떤 연도 맺을 수 없으니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그놈이 씹씹거리면서 나갔죠.”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고덕은 봉봉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짐작이 갔다.

2-2. 고덕이 ‘천 년 집사’라는 계정을 만든 이유는 누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다음에서 말하는 ‘그 둘’이 누구인지 추측해 봅시다.

“보면 몰라. 골골송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그래서 말인데 만약 네가 다시 그 둘을 만난다면 넌 개들을 알아볼 자신이 있어?”

“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려고 이래. 둘은 누굴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둘.”

잠시 생각에 잠긴 고덕이 손을 뚝 멈췄다. 분홍은 고덕이 속으로 무엇을 떠올렸는지 다 알면서도 탄청을 피웠다. 고덕과 분홍은 서로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를 피하는 듯 두 이름을 회피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쇠로 나오면 섭섭한데. 난 아빠 집사가 너무 해매고 있어서 반칙을 쓰려는 건데. 말해 줘선 안 되는 걸 말하는 반칙.”

“너 자꾸 이상한 말하면 내 의심이 확신이 서. 네 능력치를 숨기고 나한테 붙어 있다는 확신.”

“고양이 회차는 비밀 중의 비밀이야.”

“메리와 줄무늬는 자랑스럽게 말하잖아.”

“그 둘은 성격인 거고, 대다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집고양이 출신인 메리와 줄무늬의 친화성 좋은 성격이 비밀이 없다는 걸 뜻하는 말이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었다.

“참고로 그 둘은 같은 날 만났어.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4.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찾아 특징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그러나 방문한 집 어디에도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낮선 방문객의 등장에 몸을 숨기는 일은 흔히 있는 터라 고덕은 개의치 않았다.

“고양이 종류가 뭐죠?”

“코리안쇼트헤어요. 검은색 흰색 텍시도고요.”

고덕의 카메라는 줌아웃 되어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 고양이에게로 향했다. 가족들이 말한 대로 등은 검은색 털로 덮이고 배와 앞발만 흰색인 전형적인 텍시도 고양이였다.

“흥! 백 년이든 백 년이든 내가 싫으면 안 돼. 나보다 1센티미터라도 더 커도 더 나이 있어도 안 돼. 고양이가 닮은 파피용 같은 개도, 양고라같이 가는 털이 꽃가루처럼 날리는 놈들도 안 돼. 쭈글쭈글한 스핑크스도 안 돼. 그놈은 불쌍해서 보기 싫어. 근친 교배로 만들어 낸 먼치킨도 안 돼.”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을 읽고 째째와 고덕이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째째의 첫인사가 또 만났네, 옛던 길 보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이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오타 때문에 웃고 넘겼을 내용이지만 고덕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국소년은 지금 고덕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느 지점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었다.

고양이의 언어를 습득한 이후로 예전 영상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째째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영상을 불러왔다.

째째는 꼬리로 바닥을 쓸 듯 흔들며 흥미롭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며 건넌 첫마디는 ‘또 만났네’였다.

〈중략〉

엄마의 바람막이 안이 꿈틀꿈틀했다. 지퍼를 열자 코와 귀 끝만 새카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녀석은 고덕을 보고 야옹—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할 말이 있더라도 하듯.

그리고 째째는 고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또 만났다고.

엄마는 고양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어도 째째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던 모양이다.

“어머, 애 좀 봐. 너한테 인사하네.”

“집에 넘쳐 나는 게 고양이인데 뭘 새끼를 또 데려와.”

“아는 사람이 입양했는데 애들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몰랐나 봐. 누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피부병 있어서 병원비 많이 나온다는 말에 또 파양당했다지 뭐니. 이렇게 예쁜 애를.”

[지도 tip] 서사의 전개상 째째와 고덕의 만남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단계이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2.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 봅시다.

- | | |
|---------------------------------------|-----------|
| ① 테오는 ‘미국남자’라는 닉네임으로 고덕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 | (○ ×) |
| ② 고덕은 갑작스러운 엄마의 전화에 3년 만에 엄마를 찾아갔다. | (○ ×) |
| ③ 째째는 고덕에게 자신의 목숨 하나를 주었다. | (○ ×) |
| ④ 살인마는 고양이의 능력을 얻어 천 년 집사가 되려 하고 있다. | (○ ×) |

3. 고양이의 아홉 가지 능력을 상상해 봅시다.

회차	능력
1회차	고양이 언어 사용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지도 tip]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회차별 고양이 능력이 제시되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 ① 고덕의 엄마 집에 남은 누런 점박이 고양이의 이름은 ()이다.
- ② 일진 고양이 '존남'은 고덕의 입에 ()을 넣었다.
- ③ 제일빌딩 주차장에 사는 고양이의 이름은 ()이다.

2. 다음을 읽고 노묘의 능력을 추측해 봅시다.

고덕이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자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노묘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저 인간을 도왔어요.”
 “고맙네.”
 “묘하군요.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는 할멈이 일개 인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이라니.”
 “인연을 이어 주는 것뿐이야. 사라진 네 자식과 저 인간의 인연이 참 짝기거든. 이 보은은 무엇으로 해 줄까?”
 “그저 내 아이를 무사히 살려 보내 주기만 한다면 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 저 인간이 네 아이를 살리고 최고의 집사를 만나게 해 줄 거야.”

3. 다음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고덕은 비어 있는 사료통과 물통에 건사료를 담고 물도 채워주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일빌딩과 다른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려는 찰나, 누군가 지하주차장의 구석으로 다가왔다. 어두워 보이지 않던 얼굴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전에 경찰서에서 봤던 연두의 엄마였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미러 섀팅 된 차라 그녀는 운전석에 있는 고덕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오른손에 든 종이 가방에서 새끼 고양이의 머리가 쑥 올라왔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다.
 결국 버리는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나온 전우보다 더한 인연으로 연두와 분홍의 삶이 해피 엔딩일 줄 알았는데. 아이가 무사히 살아오면 뭐든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던 마음이 다시 이기심으로 채워진 거겠지.

3-1. 다음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참고 영상: 나는 오늘, 고양이를 버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tip6LGbu13s>

3-2. 엄마가 분홍을 버린 걸 알았을 때 연두의 마음은 어땠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 ① 아파트의 두 터줏대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② '제일빌딩'이 고덕의 아파트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고덕은 두 터줏대감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2. 터줏대감이 무엇을 요구할지 추측해 봅시다.

108동이라.

고양이들이 명당이라 손꼽는 가장 외진 동을 제일빌딩의 새 거처로 내어 준 걸 보면 터줏대감들이 약속 하
나는 확실하게 이행한 셈이다. 하지만 그 고양이의 보은이란 게 무시무시한 이자를 붙여 돌아오는 사채와도
같다는 사실에 고덕은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다.

3. 다음 영상을 보고 길고양이의 삶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 오면 안 되는 곳을 왔나? 원래 우리 같은 스트리트 출신은 길어 봤자 3년이야. 여기저기 떠도는 건 새삼
스럽지도 않아. 넌 일찍일찍 좀 다녀라.”

그 말을 마친 뒤 녀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 참고 영상: [SBS 스페셜] 요약 '우리가 몰랐던 묘생, 길냥이가 사는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An-6F2KGKZE>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밑줄 친 행동을 하는 분홍의 심리를 추측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고양이가 집에서 보여 주는 모습 8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q7ELPxDDzyA>

“안 돼. 그리고 넌 아빠면 아빠고 집사면 집사지, 아빠 집사가 뭐냐. 그리고 왜 만날 몸 한쪽을 나한테 붙이고 있는 거야?”

“충전, 시간 날 때마다 완충시켜 놓으려고.”

“난 완충 필요 없는데.”

“이봐, 집사! 오해가 깊은 것 같은데 충전은 내가 하는 거야. 집사는 나의 보조 배터리고.”

실로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비유법에 실소가 났다.

“조그만 게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아빠 집사가 용량이 딸려 아쉽지만 급한 대로 쓰라 그러던데. 애정은 바닥을 치기 전에 틈틈이 충전해 두는 거라고 그랬어.”

2. <보기1>과 <보기2>를 읽고 고덕과 연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1〉

고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다섯 마리 고양이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마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새끼 고양이들을 버렸다. 고덕의 엄마는 고양이 밥을 챙기면서 남편과 자식의 끼니는 챙기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아들인 자신보다 엄마가 더 꼼꼼하게 챙기는 고양이들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추운 날이었다. 누군가 고덕의 집 앞에 함부로 버리고 가면서 사랑으로 키워 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다섯 마리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 줬으면서도 새끼 고양이들을 박스째 유기했다.

고덕은 엄마가 알기 전 그 고양이 박스를 들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24시간 진료라는 그 동물병원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병원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곧 사람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혹시 몰라 제 점퍼를 벗어 고양이들을 덮어 주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고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병원에 들렀다. 박스는 여전히 닫힌 문 앞에 있었다. 고덕이 덮어 준 점퍼 아래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는 모두 얼어 죽은 채였다.

그 일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고덕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보기2〉

“아이, 그러지 말고 원장님도 한 잔만 드세요. 병원까지 5분도 안 걸려요.”

“거리 문제가 아니잖아. 의사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해. 지윤 선생 많이 먹어.”

취기가 잔뜩 오른 지윤이 말했다.

“원장님, 이제 그만 그때 기억은 내려놓으세요. 당직 바꿔 주기로 해 놓고 술 마시고 뺨은 그 선생 잘못이지 원장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연주는 말이 없었다.

“아닌 말로 그 추운 날씨에 새끼 고양이를 병원 밖에 두고 초인종만 누르고 간 놈의 잘못이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병원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회 초년생 시절이라 병원에서의 당직은 늘 있는 일이었다. 서로가 원하는 날짜로 당직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무게감 또한 가볍던 시절이었다. 그랬기에 연주는 술에 취해 당직실에서 잠자던 동료들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던 길에 마주친 소년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죽은 고양이가 든 상자를 안고 돌아서던 소년은 울고 있었다. 연주는 한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차렸다. 원망과 자책, 다섯 마리 고양이의 죽음 앞에 두 사람 모두가 그 마음을 나눌 가졌다. 바로 그때 연주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다급히 진료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연주가 일어서자 서준이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연주는 테오를 두고 일어 서려는 서준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혼자 병원으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본 지윤은 자기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지도 tip]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소설의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고덕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참고 영상: 길고양이에게 밥 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https://www.youtube.com/watch?v=xZi4At-anJo&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8-&index=8>

“아주 예전 인간들은 마당에 해당화도 키우고 능소화도 심고 난을 키우기도 했어.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고 귀하게 여겼지. 그런데 요즘의 인간, 너희는 그저 장미 아니면 백합, 꺾어서 들이는 꽃만 좋아해. 그냥 땅속에 뿌리를 둔 채 자라는 꽃들을 몰라. 고양이나 개도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밖에 두고 조금 제 세상을 살아가도록 뒀야 하는데 그저 제 집 안으로 끼고 들어가. 나는 너희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일차원적이라 그저 자신이 껴안고 모든 걸 감당하려고만 했어. 모자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네 어머니는 내려놓는 것도 사랑인 걸 몰랐던 거지. 근데 뭐, 사랑은 보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가 새끼 고양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야.”

4. <보기2>의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여 <보기1>의 ‘다른 가능성’의 의미를 추론해 봅시다.

<보기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정 여사의 아들은 분명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까지 하는데 그 언어와 함께 와야 할 신체적 능력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고양이의 능력치가 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이 일에 전례가 있거나 매뉴얼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줄무늬는 본능적으로 고덕의 1회차 능력치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헤어볼을 뱉어도 수십 개를 뱉었을 시간 동안 경찰 인간은 고작 지역이 다른 고양이들의 사투리 듣기, 말하기 능력만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중략>

“근데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말과 신체 능력은 세트처럼 있는 거 아닌가?”

“모르지. 나도 털 나고 인간이 고양이의 생명을 얻은 건 처음 본 거니까. 새끼 고양이의 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면 그 능력이 쪼개진 걸 테고.”

“쪼개져?”

“둘로 나뉜 거면 다른 어디에 흘렸을 테고 다른 누군가가 가졌다는 애긴데…….”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 둔한 메리조차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 생각을 한 순간 털이 곤추서며 몸이 부르르 떨렸다.

<보기2>

그는 필사적으로 녀석의 심장계를 주무르고 입을 벌려 숨을 쉬게 했다. 살아 있는 어린 생명, ‘쨍쨍’라는 귀여운 이름을 두고 떠나려는 그 아이를 붙잡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껏전에서 시끄러운 세상이 물러나고 천국과도 같은 고요가 찾아들었다.

<중략>

“넌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이 반쪽을 지키느라. 이걸 내 목숨과 바꾼 선물이야. 그러니까 꼭 나를 찾아내. 내

가 어디서 태어나든, 꼭 나를 찾으러 와.”

“너…….”

“우릴 찌른 짐승을 봤어. 내가, 기억하니까. 엄마는 잊고 떠나야 하지만, 난 기억할 거야. 하지만 당신을…….

그러니 천 년 집사가 돼서 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지만 고덕은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리란 걸.

[지도 tip] ‘반쪽’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① 국밥집 고양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고덕의 어머니와 재재를 죽인 범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③ 노승은 고덕이 만나고 싶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 ④ 제일빌딩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2. 어린 고양이가 어떤 존재일지 추측해 봅시다.

어제 보쌈집에서 더 많은 야채를 사 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수육을 준비한다는 건 예약 손님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짜투리로 남은 고기는 저 어린 녀석의 밥통에 던져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반면에 순대국밥집은 예약이 없더라도 몇 주 만에 비가 오지 않은 화창한 주말이라 손님이 몰릴 것이 당연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시장통인 데다 오랜 단골도 많고 인심도 넉넉한 두 가게가 문전성시가 되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힘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이 거친 길고양이의 세계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녀석은 아직 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도 tip] 국밥집 어린 고양이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듭니다.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게 하는 활동으로 연계해 주세요.

3. 영상에 제시된 시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참고 영상: 성우 김연우가 직접 읽는, 김춘수의 '꽃' [타인의 시선]
<https://www.youtube.com/watch?v=w8mHQe4rKCI>

“이제 불러.”

“응?”

“이름!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처음 불러 줘야지. 이름은 상대가 많이 불러 줄수록 더 강력한 힘이 생겨.”

“아, 그래. 누룽지.”

“확인 도장, 세 번.”

“누룽지, 누룽지, 너는 누룽지다.”

누룽지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고덕은 이상한 저릿함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름 지어 준 누룽지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알았다.

이름이란 불러 주고 응답할수록 힘을 가진다는 고양이 세계의 교훈은 오히려 인간인 고덕을 달라지게 만드
는 기분이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삶에 대해 알아보시다.

▶ 참고 영상: 삶과 고양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https://www.youtube.com/watch?v=Q64a84eNZC4>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삶은 눈동자와 거래를 했다.

자신의 터전이 짓밟혀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뱉지만 그중 한 마리를 천 년 집사에게 내어 주어야 했다. 눈동자는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다리를 못 쓴 채로 태어날 것란 걸 미리 알려 주었다. 지킬 수 없는 그 한 마리를 경찰 인간에게 내어 주면 남은 세 마리를 지킬 새로운 터를 얻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제가 받을 반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암전히 발치에 엎드려 있던 설표가 뛰어올라 고승을 향해 달려들었다. 고승이 설표의 눈을 가로막은 순간 커다란 종소리와 함께 고덕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중략〉

그는 일부러 설표의 눈을 막은 뒤 어둠 속에서 고덕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

“열 번째 생을 찾아가시게. 자네 주위의 수많은 고양이의 눈과 귀를 조심해야 해. 지금 이 설표의 눈조차 그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네. 그들 중 믿지 못하는 이들은 자네가 아홉 개의 목숨을 얻어 천 년 집사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 때가 될 때까지 그 어떤 고양이의 눈과 귀도 믿어서는 안 돼. 무엇보다 눈동자를 조심하게.”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줄무늬와 메리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고승의 마지막 말이 고덕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2-1. 삶에게 새끼 한 마리를 천 년 집사에게 내어 주라고 한 눈동자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2-2. 눈동자를 조심하라는 노승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2-3. 위 답변을 참고하여 눈동자의 정체를 추측해 봅시다.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근데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말과 신체 능력은 세트처럼 있는 거 아닌가?”
“모르지. 나도 털 나고 인간이 고양이의 생명을 얻은 건 처음 본 거니까. 새끼 고양이의 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걸 못 받았다면 그 능력이 쪼개진 걸 테고.”
“쪼개져?”
“둘로 나뉜 거면 다른 어디에 흘렸을 테고 다른 누군가가 가졌다는 얘긴데…….”

그 육중하고 거대한 시곗바늘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테오뿐이었다.
수많은 시곗바늘이 여전히 0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고덕의 시계는 이제 막 2에 도달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직도 0과 1 사이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의 시곗바늘과 어느새 앞서가 5에 머물러 있는 시곗바늘도 있었다.
테오는 그 시곗바늘이 공중으로 솟구쳐 정확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살인마와 이고덕, 그리고 자신.

3-1. 누군가의 능력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3-2. 밑줄 친 ‘누군가’가 누구인지 상상해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질문에 답하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상상하며 다른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길연주와 두섬땡 동물병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
- ② 서준은 어떤 역할을 할까?
- ③ 고승은 어떤 역할을 할까?
- ④ 째째는 어떤 고양이로 환생했을까?
- ⑤ 살인마는 누구일까?
- ⑥ 살인마는 어떻게 능력을 얻게 될까?
- ⑦ 테오와 고덕은 어떻게 협력할까?
- ⑧ 천 년 집사는 누가 될까?
- ⑨ 어떤 고양이가 백 년 고양이일까?

2. 다음을 참고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소설의 구성 단계

- ① **발단:** 소설의 첫 부분으로, 주인공과 배경이 소개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요 인물과 세계관을 설정하고 갈등의 씨앗을 심는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사건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 ② **전개:**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사건들이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주인공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캐릭터 간의 관계나 갈등이 깊어진다.
- ③ **절정:** 소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주인공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독자의 기대와 긴장이 극대화된다.
- ④ **위기:** 절정 이후,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다. 주인공이 큰 위험에 빠지거나 해결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 ⑤ **결말:**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주요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정리된다. 주인공이 변화한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거나, 이야기의 여운이 남는 끝맺음이 이루어진다.

예시	
발단	한 소년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 온 뒤, 그곳에서 겪을 모험의 서막이 열립니다.
전개	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들과 함께 큰 미스터리해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절정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리의 핵심 장소로 가서 큰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위기	소년과 친구들이 악당에게 붙잡히거나, 도망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말	소년과 친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함께 겪은 일로 인해 더욱 성장합니다.

2-1. 1권의 줄거리를 떠올려 보고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지도 tip]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되, 작품 내용을 근거로 말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3. 1번을 참고하여 이어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예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4. 챗GPT를 활용해서 소설을 써 봅시다.

▶ 참고 영상: 10분이면 나도 웹소설 작가? 챗GPT로 웹소설 한편 똑딱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048vBp2Frtw>

[지도 tip] 돌려 읽기 활동을 고려하여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5. 완성된 소설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